

지역 소식통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드라이브 스루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난감도서관 임시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을 통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임시휴관 종료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난감도서관 직원과 이용자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대여 방식으로 필요한 장난감을 미리 전화로 신청하고 본인의 차에 탑승한 채 장난감을 전달 받는 서비스이다.

이용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장난감 대여 수량은 아동 1인당 2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이용시에는 회원카드 지참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면 된다. 반납된 장난감은 소독실시 후 재대여 및 비치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문송자 군 교육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영유아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 종사자
'착한소비' 운동 한마음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고자 뜻을 모았다.

고창군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높이고장 카드로 충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은 고창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하여 현재 22개소 214명에게 월 12~15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평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뜻을 모아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얼어붙은 고용위기에 온기

“이젠 로봇이 소젖 짠다”

고창군, 로봇착유기 등 도입 스마트 축산산업 선도

정읍시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본격 총 8억3900만원 들여 생계비·단기일자리 등 제공

정읍시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직 등으로 얼어붙은 고용 위기에 다소나마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되며, 8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608명에게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사업(1유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생계비 지원사업(2유형), 비정규직 실직자(특고·일용직 등)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제공사업(3유형) 등이다.

1유형과 2유형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비정규직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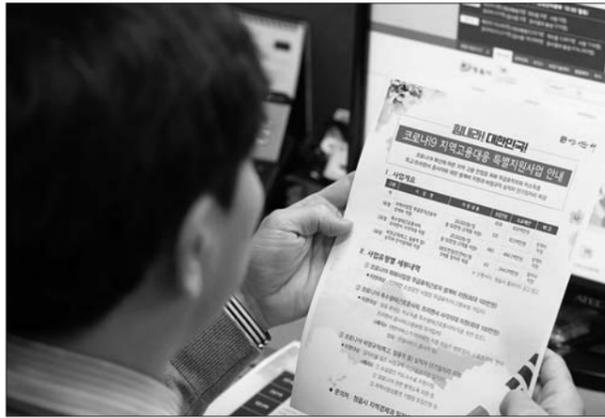
는 3유형 사업은 공공기관에 3개월간 단기일자리를 제공해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팀(☎539-564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 '한 권의 책' 직접 뽑고 함께 읽어요

27일까지 온라인 투표 진행

정읍시가 올해 시민과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을 선정한다.

올해 선정될 도서는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각 1권씩이며, 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 후보 도서로는 ▲역사의 쓸모(최태성) ▲방구석미술관(조원재)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다.

어린이용 후보 도서는 ▲걱정상자(조미자) ▲100년 아이(김지연) ▲빨간 보자기(김용삼)로 누구나 함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온라인 투표는 정읍시청과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정읍시 페이스북, 학부모기자단 등 SNS를 통해 실시한다.

시는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중·고교 알리미 서비스인 '학교종이' 안내와 지역 공공

기관에도 안내할 방침이다.

단, 도서관 휴관, 학교 휴교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올해 오프라인 투표와 선포식은 생략한다.

선정된 한 권의 책은 발표 후 독서운동 전개와 작가와의 만남, 연계 행사 등을 진행하고, 지역 내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캠페인

고창군 장애인·노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 없는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캠페인이 펼쳐졌다.

지난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회원들이 지난 2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소규모 상가에 방문해 '간이경사로 설치

사업'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군민참여단 회원들은 각 상가를 방문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경사로가 없는 곳은 일반인들에겐 낮은 문턱이지만 몸이 불편한 주민들에겐 일상생활의 큰 장벽이 되고 있

다. 이에 고창군은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에 대해선 현장조사 후 주출입구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간이경사로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임채남 군청 사회복지과장은 "경사로에 장애인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나오거나 지팡이를 짚는 어르신들의 출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점 매출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우농장의 농부가 TV 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작동, 소들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축사의 환경과 사료 급여량을 조절한다.

에 관계없이 목장에 있어야 하고, 일부 신체적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청 이동태 축산과장은 "ICT융복합 스마트 축산은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겠다"며 "스마트 축산으로 해당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환경도 개선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7세 미만 아동에 '아동 돌봄 쿠폰' 지원

4074명에 40만원 상당 혜택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아동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1인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16억여 원)로 지급하는 긴급지원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 4월 ~ 2020. 3월생)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약 4,074명의 아동이 해당된다.

만약 2020년 1~3월 출생했지만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일정 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과 돌봄 쿠폰을 신청하면 된다. 돌봄 쿠폰 지급방식은 현재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

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카드사에서 6일 발송하는 '신청 동의' 문자에 동의해 주면 자동 신청된다.

바우처카드 미보유 대상 가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정읍사랑 상품권(모바일)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각 가정에서는 12월 말까지 40만 원을 현금처럼 사용하면 되고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유념해야 한다.

시는 4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